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February 11

• 마태복음 6:9

제3계명은 구약과 신약에서 달리 적용됩니다. 구약의 법이 부정적 의미의 '금지법'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긍정적 의미의 '실천법'으로 새로이 읽힙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라'고 명하십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존경, 등을 굽히거나 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축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께 나와 자복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모든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전 영역에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를 통해 일상적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게 변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롬 8:28).

우리는 아직 다 살지 않았고,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생을 끊어서 보면 비극이고, 나락을 경험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선하신 뜻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나는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진심으로 신뢰합니까?

❶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드러냅니까?
❷ 나의 불신과 연약함에도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합니까?